



4 대학
탄소 중립과 함께하는
2023 성결대학교
총 MT : MBTI



7 사회
벼랑 끝에 선
교사들



9 교양
오늘 뭐 먹지?



12 기획
청년 정책을
말하다

‘클린어스(CLEAN:US)’ 캠페인으로 탄소중립 박차



본교와 총학생회는 지난 8월 9일, 재학생 약 160명이 모인 가운데 탄소중립 캠퍼스 실현을 위해 ‘클린어스(CLEAN:US)’ 캠페인을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캠퍼스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본교의 탄소중립 캠퍼스 구축 목표와 연계되며, 김상식 총장의 인사말과

박주혁 총학생회장의 선언문을 시작으로 탄소중립과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김상식 총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캠퍼스 구축을 본교의 핵심 교육 목표 중 하나로 강조하며, 본교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선도적 역할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

생지원과는 CLEAN:US 캠페인을 교내 캠퍼스에서부터 시작해 ▲안양시와 연계한 안양천 플로깅 ▲속초시와의 친환경 현장체험 ▲수원 야구장과의 탄소중립 홍보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속초시와 연계하여 약 160명의 재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속초

시 사잇길 걷기와 플로깅, 재활용 선별장 체험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의식 개선에 동참했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2023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빛나G’ 사업 선정



본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평생배움대학-2030 빛나G’ 사업에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1984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생한 경기도 내 거주하는 2030세대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경기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주요 과정에는 ‘나도 작가다’, ‘나도 감독이다’, ‘나도 아트컨설턴트다’와 같은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분야가 포함돼 있다. 이런 과정들은 주원규 작가, 박정례 감독, 주희현 한국문화예술컨설팅대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지도한다. ‘빛나G 성결캠퍼스’는 수강생 모집을 위해 지난 7월 7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문화의 거리에서 오픈닝 버스

킹 공연을 선보였다. 정희석 평생교육원장은 “학업, 취업, 육아에 지친 2030세대들의 정서와 감정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직무와 생활에 연계할 수 있는 문화 소통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상식 총장도 “취업, 생계, 육아 등의 현안을 창의적으로 대처하며 자기주도적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강의를 문화예술과 인문교육에 최적화된 대학 인프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경영학과, 해외취업 지원 현지방문 프로그램 실시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본교 경영학과 재학생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본 취업 탐방 프로그램을 2023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했다. 최근 한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 고착화로 인해 청년층의 국내 취업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코로나 팬데믹의 진정으로 인해 재학생의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대학 졸업생의 선호도가 높고, 한국 대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선발 의지가 있는 일본 내 기업을 방문해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학과 조준현 교수의 인솔하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국은행 도쿄사무소 등을 방문해 일본의 경제 상황 및 대학생들의 취업 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청취했다. 또한, 매출 1,000억 이상인 한국계 중견기업인 ▲하나투어 재팬 ▲일본 KISSCO ▲(주)SBJ ▲(주)한

국광장 등 6개 업체의 본사를 직접 방문해 각 기업체의 경영실태와 취업에 필요한 요건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취업설명회도 개최했다. 아마존 재팬이나 히타치 등 일본 유명 대기업에 근무 중인 현직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일본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취업 스펙 및 취업 가능성, 현지 생활 여건 등에 관해 멘토링을 시간을 가졌다.

이번 취업 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본 탐방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해외 취업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었으며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본교는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글로벌 역량 함양과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사회복지학과, 국외 대학 교류 및 사회복지기관 현장학습 프로그램 실시



본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국외 대학 교류 세미나 및 현지 사회복지기관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했다. 이는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현장실습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 복지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적 전문가양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노인과 장애인복지 정책을 비교 분석 및 평가하고, 일본 동양대학교(Toyo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와 본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간 세미나를 진행했다. 또한 본교 사회복지학과와 일본 동양대학교 복지사회개발연구센터 간의 MOU를 체결해 양 대학교 학생들의 취업 연계 및 현장실습 진행, 교수초청 세미나, 심포지엄, 교직원들의 분야별 국제

학술지 공동연구 등을 논의했다. 이번 국외 대학 교류 세미나 및 현지 사회복지기관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세타가야 장애인복지시설과 고령자 재활병원을 직접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 환경과 실천현장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에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졌으며, 한국의 사회복지 현장에 어떠한 실천과 정책을 도입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해외 현장실습과 취업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얻었으며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됐다는 만족감을 표시했다. 본교는 추후에도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2023 한성연 연합대학봉사단, 송산포도농장 자원봉사 진행



한국성결교회연합회인 ▲성결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연합대학봉사단이 본교 사회봉사센터 주관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7월 7일 송산포도원혜농원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성연 연합대학봉사단은 2022년도 여름 전남 신안군에서 진행한 농촌 마을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2023년도에도 성결교단 간의 인연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송산포도원혜농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총 32명의 학생과 각 학교 교직원이 함께한 송산포도원혜농원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돕고 한성연 연합대학봉사단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값진 계기가 됐다. 이번 봉사를 통해 농장에서 나오는 작물 하

나하나가 일하시는 분들의 많은 노고와 정성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3개 대학교가 합심해 포도 농장 하우스 한 필지에 포도 봉지 씌우기를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서로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본교 사회봉사센터 김계동 센터장은 "이번 봉사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연합봉사단의 긍정적인 시너지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성연 연합봉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한성연 연합대학봉사단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의왕시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 실시



본교 지역사회협력단은 7월 21일과 28일에 의왕시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대학 학과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본교의 '성결비전 2030' 중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교는 2018년과 2022년에 교육기부 진로체험 지정기관으로 인증받아 2020년 의왕시청소년수련관과의 협약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백운중학교와 고천중학교의 총 4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교육 ▲뷰티디자인 ▲실용음악 ▲

연극영화 ▲유아교육 ▲음악 ▲정보통신공학 ▲XR센터 ▲커피바리스타 체험 등 다양한 학과(부)의 체험을 제공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학업 동기부여 및 진로 개척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본교 김상식 총장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함께 발전하고 미래의 주인공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학이 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영화영상학과 04학번 윤혜림 감독, <O'PENing>에서 '썸머, 러브머신 블루스' 공개

영화영상학과 04학번 윤혜림 감독은 <O'PENing> 프로젝트에서 '썸머, 러브머신 블루스'라는 작품으로 배우 고수와 아린과 함께 작업해 7월 13일 오후 4시 티빙(TVing)에서 첫 공개 됐다. 7월 16일 오후 10시 40 분에는 tvN에서 첫방송 돼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썸머, 러브머신 블루스'(극본 이충한, 연출 윤혜림)는 고시낭인 출신의 성인용품 쇼핑몰 사장 이수 와 열혈 재수생 드림의 본격 과외-알바 등가교환 로드 무비로 고수와 아린의 새로운 조합을 선보여 여름에 걸맞은 강렬한 재미를 예고하고 있다. 신예 작가들의 다채로운 발상에 더해 각 감독의 빼어난 연출력, 탄탄한 배우진을 구축한 '오프닝 2023' 제작진은 "〈오프닝 2023〉이 보다 눈부시고 찬란한 7가지 이야기로 돌아왔다. 신선한 시각을 제시할 작품들과 함께 울여름을 즐겨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tvN x TVING 프로젝트 <오프닝 2023>는 색다른 조합과 극본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대한네일미용사회와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



본교는 7월 3일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사회와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본교 김상식 총장과 정희석 부총장,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사회 강문태 회장과 이희정 부회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양 기관의 운영 및 기관발전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맞춤형 인재 훈련을 위한 운영 지원 및 상호 협력 ▲국제협력사업 상호 협력 지원 등 네일미용업을 활성화하고 평생 직업교육 협력을 위한 방안들로 구성돼 있다. 본교 김상식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결대학교는 (사)대한네일미용사회와 협업하여 네일미용 분야 발전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 현장에 기반을 둔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김상식 총장, 'NO EXIT' 마약 예방 캠페인 동참



김상식 총장은 나사렛대학교 김경수 총장의 지명을 받아 6월 26일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NO EXIT(출구 없음)'에 동참했다. 매년 6월 26일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로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는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하게 돼 그 의미를 더했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 기관의 합동으로 주관하는 본 캠페인은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함은 물론 마약 퇴출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식 총장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인증사진을 본교 SNS에 게재하고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수원대학교 임경숙 총장과 충신대학

교 박성규 총장을 지목했다. 김상식 총장은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청정국'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마약의 생산이나 유통이 쉽지 않은 나라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입지가 흔들린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올 만큼,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생산 및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마약 근절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앞으로 본교는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방했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영화영상학과, 영화진흥위원회 2023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단편 부문 총 5명 선정

나상에 가건	김남진	김남진	16,000,000
서교의 바다	신하연	신하연	18,000,000
꽃줄	임익준	임익준	19,900,000
꽃부리영감	홍승기	홍승기	19,000,000
여름 하늘에 스나기	전소원	전소원	11,000,000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최된 2023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단편부문 심사결과, 본교 졸업생 및 학부생 ▲14학번 김남진 ▲15학번 신하연 ▲16학번 임익준 ▲18학번 홍승기 ▲19학번 전소원 5명이 선정됐다. 이에 대한 심사총평으로 "2023년 올해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 단편 부문'은 총 542편이 지원했다. 한달여간 진행된 서류 심사에서는 시나리오의 작품성, 참신성, 제작계획서, 예산서 등과 작품의 타당성을 면밀히 평가했고, 4일에 걸친 면접 심사에서는 기획 의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질문과 제작진에 대한 신뢰도를 포함한 영화온성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46개 작품에 총액 7억 580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의 영화규모에 걸맞는 금액으로 차등지원을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출품된 작품들은 예년처럼 성장통, 가족,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재를 담아낸 영화들이 많았으며, 특히 젊은이들의 주거문제와 살고 있는 터전의 재개발 등에 대한 이슈가 돋보였다. 예전과 달리 근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SF적 상상력의 시나리오들이 다소 증가해 Covid-19 이후 변화한 사회적 상황과 조건들이 젊은 영화인들에게 장르적 상상력을 확장시켰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본교 학부생과 졸업생은 총 지원금 7억 5,800만 원 중 8,400만 원 가량을 지원받으며, 올 하반기 영화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탄소 중립과 함께하는 2023 성결대학교 총 MT : MBTI

본교는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탄소 중립과 함께하는 2023 성결대학교 총 MT : MBTI'를 진행했다. 행사를 통해 본교 학생들 간의 결속력을 이끌어내고 애교심을 향상시키는 것뿐 아니라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탄소 중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번 호에서는 학우들에게 여름날의 추억을 선물해 준 '탄소 중립과 함께하는 2023 성결대학교 총 MT : MBTI'를 소개하고자 한다.

#OT



본격적인 총 MT 진행에 앞서 8월 9일, 본교에서 사전 OT 및 안전교육과 탄소중립 교육이 실시됐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건강한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DAY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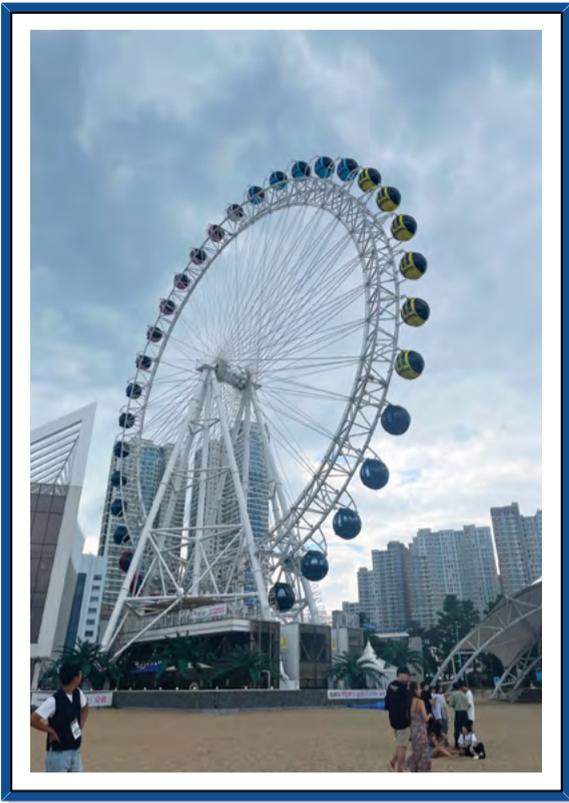
총 MT 출발 전, 전체 인원은 본교에 집합했다. 팀 및 좌석 배치, 안전교육과 탄소 중립 교육이 실시됐다. 탄소 중립과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이는 탄소 중립 캠퍼스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준비를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교육 이후에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속초시로 출발했다.



이후 숙소에서는 참여자들의 MBTI 유형별 관계도에 맞춰 구성된 팀별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다. 다양한 게임과 함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총 MT 첫째 날이 마무리됐다.



#DAY 2



둘째 날에는 속초 사잇길 투어가 진행됐다. 속초 사잇길 투어는 총 2가지 활동으로 플로깅과 속초 종합폐기물처리센터 방문으로 구성됐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낌과 동시에 그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투어 중에는 조별 미션도 진행됐다. 'Re:You 총 MT 기획단'이 준비한 필터 미션과 릴스 미션으로, 트렌디함 30%, 창의성 50%, 단합력 20%의 기준으로 심사됐다. 1등부터 3등까지의 조원들에게는 상품도 지급했다.

#DAY 3



속초에서 본교로의 복귀를 끝으로 3일간의 '탄소 중립과 함께하는 2023 성결대학교 총 MT : MBTI'가 마무리됐다. 본교 학우들은 총 MT를 통해 서로 간의 결속력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애교심 또한 향상됐을 것이다. 또한, 환경 문제를 잊지 않고, 탄소 중립 캠퍼스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평범한 일상을 잠시 미뤄두고 떠난 속초에서의 활동은 학우들의 대학 생활의 기억 한 곳에 크게 자리 잡을 것이다. 개강 전 진행된 이번 총 MT가 학우들에게 여름날의 빛나는 추억으로 남았길 바란다.

#EPILOGUE

	72	90	2
게시물	팔로워	팔로잉	

성결대학교 제39대 총학생회 총 MT
RE:NEW 총학생회 X Re:You 총 MT 기획단 계정
본계정: @sku_39th_renew
주소: 학생회관 2층 201호 총학생회실
메일: 39renew@naver.com
linktr.ee/renew_39th



이번 총 MT 진행에 있어 'RE:NEW 총학생회'와 'RE:You 총 MT 기획단'은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총 MT의 브랜드 컨셉을 정해 행사와 관련된 공지사항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했다.

또, 조별 미션에 활용할 인스타그램 필터와 인스타그램 릴스 음원도 자체적으로 제작했다. 인스타그램 릴스 음원 제작에는 'RE:NEW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본교 학우도 참여했다. MBTI를 테마로 한 이번 총 MT는 'RE:NEW 총학생회'와 'RE:You 총 MT 기획단'의 특특 튀는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빛나는 행사였다.

치얼업, 마이 취업!

무더위와 함께 여름방학도 끝이 났다. 본격적인 2학기 시작과 함께 한 학년의 끝자락이 다가오고 있다. 대학생에게 학년이 올라간다는 것은 취업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원하는 직무를 선택해도 그저 막막하고 걱정이 되거나 혹은 아직 직무조차 선택하지 못한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호에서는 본인이 직접 직무를 알아볼 수 있는 창업, 인턴 프로그램과 그 외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창업주의 학교



창업주의 학교
적은 예산으로 빠른 시기에 진입하는 노하우 대방출
2023.03.20. MON - 11.19. SUN 자율수강

교육내용

- 1 스타트업 용어 알기
- 2 팀빌딩과 조직문화
- 3 문제정의와 아이템 구체화
- 4 고객 및 시장 검증
- 5 초기 스타트업 자금조달 방법
- 6 초기 스타트업 마케팅

수강신청 3.13(월) - 11.22(수) / QR 또는 홈페이지 통해 신청

참여방법 신청 확인 후, 개별 연락처로 접속 링크 확인

참여대상 3.20(월) - 11.19(일) 일과+비즈 참여

수료증 발급 교육이수 80% 이상, 퀴즈 모두 합격자

신청문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화기획팀 | sy77@ccok.or.kr / 064-710-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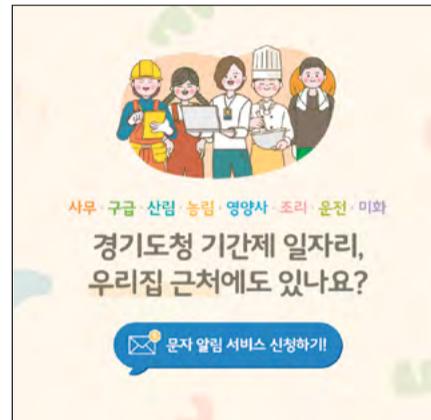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기초 지식을 쌓고 싶은 이들은 주목! '창업주의 학교'는 스타트업 용어부터 ▲팀빌딩 ▲자금조달 ▲마케팅 등을 배울 수 있는 기초 창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 과정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율적인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스타트업 용어 알기'로 시작해 스타트업 기본/주체별, 투자 용어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두 번째 과정은 '팀빌딩과 조직문화'로 ▲기업가 정신과 마인드셋 ▲스타트업 리더십과 조직관리 ▲팀빌딩 정의와 필요성이 세부 주제이다. 세 번째 과정은 '문제정의와 아이템 구체화'로 ▲문제정의 및 관점 도출 ▲아이템 구체화·고도화 ▲MVP 개념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배운다. 네 번째 과정은 '고객 및 시장 검증'으로 ▲MVP 솔루션 구체화 및 검증 방법을, 다섯 번째 과정은 '초기 스타트업 자금조달 방법'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회계 관리 ▲생존경영 로드맵과 투자 유치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마지막 과정인 '초기 스타트업 마케팅'은 실질적으로 마케팅 채널과 비용을

설계 후 마케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본 프로그램은 기초부터 실전 경험까지 쌓는다는 점에서 창업을 꿈꾸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기회이다.

모집 기간은 11월 12일(일)까지이며 운영일시는 3월 20일(월)부터 11월 19일(일)이다. 모집 대상은 예비는 물론 초기 창업자 누구나 가능하며 인원 제한은 없다. 교육 참가 신청 후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에듀위드(EDwith)에 회원 가입하면 수강이 가능하며, 강의와 퀴즈 참여로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또한 85% 이상 교육을 이수했으며 퀴즈에 모두 참가한 자는 수료증과 요약집, 별도 신청 시에는 1:1 멘토링까지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공공기관 체험형 청년인턴



사무·구급·산림·농림·영양사·조리·운전·미화

경기도청 기간제 일자리, 우리집 근처에도 있나요?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인턴을 통해 차근차근 직무 경험을 쌓고 싶은 이들은 주목! 공공기관에서는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인턴제'를 시행 중이다. 특히 체험형 청년인턴제는 '체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제도로써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에 이는 곧 업무가 적성에 맞는 지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체험형 청년인턴제의 근무 기간은 최대 5개월이며, 공고는 'JOB ALI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관마다 채용방식과 조건, 기간 등이 다르니 필요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고를 살펴보자. 참고로 사기업 인턴 채용 공고는 '온라인 청년 센터', 'JOBKOREA'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기간제 채용 공고 문자 알림'을 신청하면 경기도청 기간제 일자리 안내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보다 쉽게 채용 소식과 공고를 접할 수 있으며, 인턴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꼼꼼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높다.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20일(화)부터 2024년 6월 30일(일)로, 서비스 기간 마감 또한 2024년 6월 30일(일)까지이니 마찬가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CAP@(청년직업지도) 프로그램

나와 맞는 직무를 찾고 싶은 이들은 주목! 'CAP@(케파) 프로그램'은 Career Assistance Program Alpha의 약자로, Alpha란 처음과 으뜸을 의미한다. 이는 곧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바탕이 되는 처음이자 으뜸이라는 뜻이다. 즉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강점을 탐색하고 업·직무를 이해하도록 하며 채용트렌드에 적합한 취업서류 작성 및 면접 준비 방법 등을 수행하는 취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5~18명 내외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4일간 총 24시간 이수한다. 1일 2개 모듈이 진행되며 총 8개 모듈로 구성된다. 첫째 날은 '일과 함께하는 나'로, 나와 일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일의 관점에서 나의 장점,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날은 '내게 맞는 일터와 직무'로, 관심 있는 분야와 직무를 탐색 후 채용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이후에는 구직활동 시에 활용 가능한 본인의 강점 등 종합적으로 자신의 특성을 정리한다. 셋째 날은 '취업 첫 발 내딛기'로 구직기술을 이해하고 실습을 시행한다. 또한 ▲채용트렌드 ▲채용서류 ▲면접 준비 방법을 채용자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넷째 날은 '도전! 취업 준비'로, 모의 면접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취업준비계획을 작성한다. 이처럼 본 프로그램은 본인 탐색부터 면접까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담아 보다 번거로운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다.

1일차: 일과 함께 하는 나	2일차: 내게 맞는 일터와 직무	3일차: 취업 첫 발 내딛기	4일: 도전! 취업준비
A모듈 나와 일의 의미 탐색	C모듈 취업을 위한 업과 직무 탐색	E모듈 채용과정 이해와 서류 작성	G모듈 모의 면접
B모듈 함께 일하기: 나의 역할 탐색	D모듈 채용정보와 강점 탐색	F모듈 채용서류 실전 및 면접	H모듈 취업준비계획 수립 및 마무리

이 프로그램은 워크넷 또는 해당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실시기관은 ▲서울청(서울강남고용센터 외 4개 기관) ▲부산청(부산동부고용센터) ▲대구청(포항고용센터) ▲충북청(인천고용센터 외 3개 기관) ▲광주청(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대전청(천안고용센터)이다. 서울동부고용센터, 인천북부고용센터는 9월 11일(월)~14일(목)까지, 서울강남고용센터와 천안고용센터는 9월 18일(월)~9월 21일(목)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이 외 본인이 속한 지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2023년 제2차 모집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면접 준비시간! 비용 부담 없이! 1회 5만원 최대 50만원!

모집일시 2023년 8월 16일(수) 9시 ~ 9월 25일(월) 24시

지원대상: 최대 50만 원(최대 10회) / 경기도 각 시·군별 지역인재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apply.jobaba.net)

신청자격: 1. 경기도 거주자는 18세~39세 이하 청년
2. 사업장이 없음
① 실업급여 수급자
② 경기도생애임대지원금 사업 참여자
③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수령시 용카드 등)

문의: 1877-2046

면접비용이 부담된다면 주목!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해 면접을 응시한 청년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과 해외기업 면접 시

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취업 여부와는 무관하다. 1인당 최대 50만원의 지역화폐를 면접 수당으로 제공하며, 이는 면접 1회당 5만원, 최대 10회까지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 시기는 신청일 기준 40일 이내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에는 총 3차례로 진행되며 2차 신청 기간은 8월 16일(수)부터 9월 25일(월) 24:00까지이다.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온라인 작성) ▲주민등록등본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면접확인서 양식은 공고문의 첨부된 양식이나 면접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를 활용하면 된다. 선정 과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글 - 이서연 기자 tjus1596@sungkyul.ac.kr

사진/참조 - 경기청년포털, 워크넷, 잡아바어플라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벼랑 끝에 선 교사들

지난 7월, 한 초등학교 내에서 교사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인은 계속되는 학부모의 민원과 갑질로 인한 극단적 선택.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은 분노에 빠졌고,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락하는 교권을 지키기 위한 교사들의 처절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교권 침해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마침내 드러난 진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부임된 지 얼마 안 된 신입교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발견한 동료 교사의 신고로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

사건 발생 후 SNS 상에서 해당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졌다. 동료 교사는 해당 교사가 맡은 학급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학부모와 수차례 갈등을 빚었으며, 이 상황 속에서 학부모가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와 같은 지속적인 폭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숨진 교사는 계속되는 학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환청이 들린다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유족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숨진 교사의 일기장에는 “업무 폭탄과 학교폭력 사건이 겹치면서 모든 게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든다.”라고 적혀있었다. 숨진 교사가 이런 과도한 업무와 학부모의 폭언에 매우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서울교사노동조합은 해당 학부모의 갑질을 이 비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거리로 나온 교사들

사건 이후 해당 초등학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숨진 교사를 추모했다. 추모공간에는 동료 교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가득했고, 숨진 교사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들은 그동안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울분을 터뜨렸다. 이들은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숨진 교사를 추모하며 눈물을 흘렸다.



추모는 다른 현장에서도 이어졌다. 사건 이후 그동안 교육현장에 누적된 교권 침해 사태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교사 2,000여 명이 참석해 ‘서초교 교사 추모 및 진상 규명 촉구 집회’를 벌였다. 시위에 참석한 교사들은 검은 색 옷을 입고 숨진 교사를 추모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지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사를 보호할 제도가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내리쬐는 햇볕과 아스팔트가 뿜어내는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며 교권을 확립해달라 외쳤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적인 인권조차 교사들에게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교사가 당하는 폭언과 인격 모독은 교사의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교사가 될 학생들의 꿈마저 짓밟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태를 고발했다.



교권 추락, 누구의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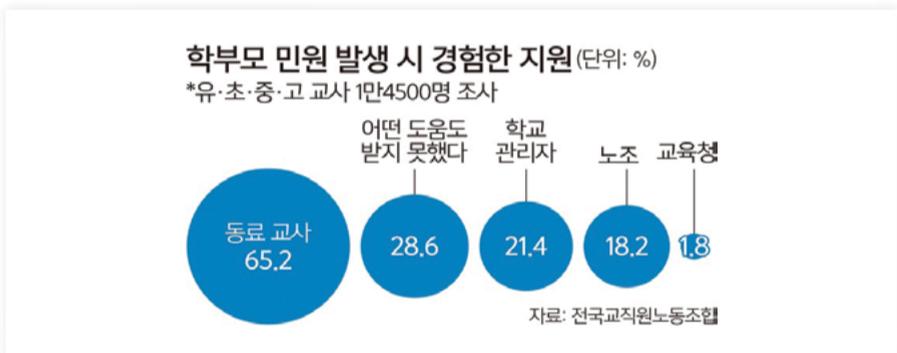
교육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 새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100여 명이 넘는다. 이들 중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고등학교 교사는 28명, 중학교 교사는 15명으로 집계됐다. 교육 당국은 이들 중 16명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겪는 교권 침해 양상이 더욱 험악해지는 요즘,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에 접수된 학부모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는 200여 건이 넘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 등교가 전면 재개되면서 예전 수준으로 늘어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중 모욕·명예훼손의 비중은 2019년 49.3%에서 2022년 37.1%로 줄었지만, 상해와 폭행의 비율은 3.5%에서 6.9%로 증가했다. 또, 학교를 방문하여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는 18.5%에서 22.3%로 늘었다. 예전에는 교권 침해가 전화로 민원을 넣는 것에 불과했다면 최근에는 교사에게 직접 폭행을 가하거나 갑질을 하는 등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사 22,084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23.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 ‘교권 침해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등 관련 제도 미흡’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처럼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탓만이 아닌 정확한 규제를 내놓지 않는 교육부의 책임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 점점 늘어나는 교권 침해, 해결책은 없을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14,500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민원 발생 시 경험한 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교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교육청이 추진했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학부모 민원이 있을 때 받은 지원으로 ‘동료 교사의 도움’이 65.2%로 가장 많았던 반면에 ‘교육청의 도움’은 고작 1.8%에 불과했다. 응답 결과를 보면,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과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이런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으로 ‘교권 침해 사안 교육감 고발의 무법제화’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학대에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 방안 5가지를 추진 대응했다. 먼저 교사들이 아이들을 자유롭게 지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했다. 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심각하게 수업을 방해할 시 교육 활동 침해로 여기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피해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피해 교사를 서로 즉시 분리하고, 교사의 피해 보상과 법률 개정을 통한 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또, 교육부는 교육 활동 침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사항과 행동을 2023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사들을 괴롭혔던 ‘학생인권조례’ 또한 개정됐다. 앞으로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거나 수업 방해 행위를 하게 된다면 ‘교권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사건 이후 전국 각지에 있는 교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의 처절한 목소리가 들렸던 걸까? 교육부에서는 즉각 대책을 내세워 교권보호에 앞장섰다. 아이들을 위해, 교사를 위해, 그 안에서 피어날 교육을 위해, 지금처럼 교육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교권과 학습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교권이 보장될 때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해 준다면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의열 투쟁 독립운동가, 김상옥

조국 광복을 위해 의열 투쟁을 전개한 독립운동가가 있었다. 종로 경찰서 투탄 의거를 성공한 김상옥. 이번 호에서는 그가 보여준 민족정신과 항일 행적에 대해 알아보자.

#비밀결사 광복단 결성



1889년 서울에서 출생한 김상옥은 생계를 도와야 했던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했다. 대장간에서 일하며 한문을 배웠고, 17세가 될 무렵에는 기독교에 입교하며 동대문교회 부설 군학교 야학에서 공부했다. 하지만 학교가 재정난으로 폐교하자 직접 동흥야학교를 설립하며 배움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이후 영덕철물점을 경영하면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룬 그는, 1913년에는 경북에서 채기중, 유창순, 한훈 등과 함께 비밀결사 광복단을 조직했고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의 조성헌병대 기습 작전에 참여해 독립에 이바지한다. 1917년에는 그가 경영하던 영덕철물점에서 말총 모자를 제조·판매해 인기를 끌었으며, 당시 대부분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 상인들에게 대항하며 일화배척과 국산품 장려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격렬한 의열투쟁을 향해서

1919년 3·1 독립운동은 김상옥에게 민족에 대한 각성과

독립운동의 길에 들어서는 커다란 계기가 됐다. 그는 4월 1일 동대문교회 내 영국인 피어슨 여사의 집에서 박노영, 윤익중, 신화수, 정설교, 전우진 등과 함께 비밀결사 혁신단을 조직해 <혁신공보>를 발행한다. 이를 시작으로 그해 9월까지 매회 1천 부씩의 지하신문을 비롯한 임시정부 후원회 취지서와 항일 전단을 제작, 배포해 독립운동의 열기를 북돋웠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과 일제의 인쇄시설 압수로 인해 신문 발행은 중지된다. 김상옥은 평화적인 방법의 독립운동이 갖는 한계를 절감하고 무력투쟁에 의한 독립 쟁취의 방안을 구상하게 된다. 1920년 1월 중국 만주 소재 독립군 단체인 북로군정서에서 파견된 김동순을 만나 무력투쟁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고 이후 김동순, 윤익중, 서대순 등과 함께 무장 의열투쟁을 지향하는 비밀결사 암살단을 조직한다.

#종로경찰서 투탄 의거 성공



1922년 11월 말 김상옥은 일제 식민 통치와 탄압의 상징이었던 종로경찰서 폭파를 위해 서울로 귀국했다. 옛 동지들이던 전우진과 이혜수의 집에서 정설교, 윤익중 등과 회의를 거듭하며 거사 준비를 갖추어 갔다. 1923년 1월 12일 밤, 마침내 그의 거사가 실행됐다. 김상옥은 종로경찰서 서편 동일당이란 간판 집의 모퉁이에서 경찰서 서편 창문을 향해 폭탄을 투척했다. 폭탄이 창문에 적중해 터지는 굉음은 마치 일제의 탄압에 억눌린 민족혼을 일깨우는 우렁찬 함성기도 같았고, 일제에는 그들의 종말을 예고하는 철저히 강렬했다. 이후 김상옥은 은신처에 몸을 감췄지만, 밀고로 포위되고 만다. 3시간여의 치열한 전투 끝에 수명의 일경을 사살하였으나 탄환이 다해 마지막 탄환으로 권총을 머리에 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순국한다.

오직 조국 독립을 필생의 목표로 삼고 한시도 그 목표를 잊어 본 적 없었던 김상옥. 그의 항일 행적과 민족정신은 당시 한국인들의 마음에 전해지며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이 이어져 조국 광복의 밑거름이 됐다.

글 - 김정민 수습기자 kjm020102@sungkyul.ac.kr

사진 - 공훈전자사료관

[참조] 공훈전자사료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아무튼 1호선

동대문역을 탐험해보자

학교를 오고 갈 때마다 자주 이용하게 되는 1호선. 하지만 막상 1호선에는 무슨 역이 있고 어느 역에 무엇이 유명한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번 호에서는 1호선의 많은 역 중에서도 놀거리와 볼거리가 많아 필자도 꼭 가보고 싶은 '동대문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로 놀러 오세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즉 '꿈꾸고(Dream), 만들고(Design), 누리며(Pla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DDP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전시장 및 쇼핑몰이다.

DDP는 연간 천만 명이상이 방문하는 디자인 성지로 명성에 맞게 매년 100건 이상의 전시와 행사 등을 개최한다. 올해도 많은 행사나 전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2023년 9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2023 추계 서울패션위크' 행

사가 있다. 이는 국내 패션브랜드를 발굴하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해 고부가가치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행사이다. 장소는 아트홀 전체 어울림 광장이니 패션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방문해서 구경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외에도 DDP에는 ▲일폰스 무하 이모션 인 서울 전시회 ▲DDP 건축 투어 등 다양한 행사가 있으니, 더 구체적인 정보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알아보자.

#지친 몸과 마음, 청계천에서 잠시 쉬어가자

청계천은 여행, 데이트 코스로 유명한 곳으로서 그에 맞게 여러 축제가 열린다. 대표적으로 2023년 9월 18일 13:00~17:00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청계아미 청계천 가을 꽃길 조성행사'가 있다. 이 행사는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가 주최하는 행사로 청계천의 가을에 꽃길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목적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계천은 3가지 코스의 산책로도 유명하다. 먼저 '청계역사길'은 모전교와 관수교까지를 이어주는 길이다. 이 길은 청계천 곳곳에 숨겨진 역사를 찾아볼 수 있어 색다른 시선으로 청계천을 즐길 수 있다. '청계활력길'은 마전교(광장시



장)~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이어주는 길이다. 이 길은 광장시장에서 맛있는 먹거리를 먹고 청계천과 동대문성곽

공원을 따라 걸으며 휴식을 취한 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구경까지 할 수 있는 길이다. 특히 이 길을 따라 걸으면 지친 삶에 더할 나위 없는 힐링을 선물한다. 마지막으로 두물다리~용답나들목교를 이어주는 '청계휴식길'이 있다. 이 길은 청계천 박물관, 판잣집테마존에서 시간을 보낸 후 신답철교 위 기차를 보며 사색을 취할 수 있는데, 특히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드라마 '도깨비'에서 나왔던 장소로 유명한 포토스팟이기도 해 청계천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잠시라도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휴식과 즐거움이 필요하다면 청계천으로 놀러 가는 건 어떨까?

#동대문종합시장으로 쇼핑 가볼까?

1970년 12월 동양 최대규모의 단일시장으로 출범하여 5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성장한 곳이다. 즉 현재는 세계적인 의류 재료 전문 상가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쇼핑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다.

동대문종합시장은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총별로 종류를 나눠 판매하고 있다. 특히 <나 혼자 산다>에서 화사와 한혜연이 방문해 화제가 된 액세서리 판매장이 인기이다. 이 액세서리 판매 매장이 이토록 인기 있는 이유는 여러 액세서리를 구매해 수제 목걸이, 팔찌 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완성된 완제품 액세서리도 팔기 때문에 자신의 물건

을 취향껏 구입 수도 있다.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액세서리 중 나만의 유일무이한 아이템을 발견할 수도 있어 기분전환에 좋은 장소이다.

동대문종합시장은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침구류 ▲홍인테리어 ▲원단 ▲한복 ▲의류 부자재 등 여러 종류를 판매하고 있어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쇼핑하다 허기질 때는 5층에 있는 푸드코트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방문을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는 일석이조이다.

층별 판매 종류와 식당 등 동대문종합시장에 방문하고 싶은 이들은 관련 정보를 해당 홈페이지에서 참고하길 바란다.



글 - 김채린 수습기자 kl3672@sungkyul.ac.kr

사진/[참조] - 국제뉴스, DDP 홈페이지, 청계천 홈페이지,

동대문종합시장 홈페이지



연예인들의 최애 레시피

최근 냉장고에 있는 흔한 재료들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낸 연예인들의 레시피가 화제 됐다. 이번 호에서는 기상천외하지만, 맛은 보장된 연예인들의 레시피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이 토스트

MBC 예능 방송 <나 혼자 산다>에서 방송인 전현무가 선보인 오이 토스트 먹방이 화제가 됐다. 찹질을 마친 뒤 전현무는 버터에 구운 식빵, 오이절임, 명란을 곁들인 크림치즈, 올리브유로 즉석에서 오이 토스트를 만들어 먹었다. 버터로 구운 식빵 한 쪽 면에 명란을 곁들인 크림치즈를 바른 뒤, 얇게 자른 오이절임을 토핑으로 올린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를 뿌려 마무리한다. 오이 토스트는 오이절임과 크림치즈가 만나 짹짹하면서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대패삼겹살 라면

대패삼겹살 라면은 마찬가지로 MBC 예능 방송 <나 혼자 산다>에서 소개된 레시피이다. 뮤지컬 배우 최재림의 대패삼겹살 라면은 대패삼겹살과 대파, 고추, 다진 마늘을 넣어 볶은 기름을 라면에 넣고 끓인다. 대패삼겹살 라면은 고깃기름이 들어가 차슈 라면의 느낌이 나고 밥을 말아 먹으니 국물이 진해서 맛있다는 등의 후기가 있다. 전현무 또한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세미나 같지?"라며 이 레시피를 인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간장국수

간장국수는 MBC 예능 방송 <나 혼자 산다>에 나온 화사가 소개한 음식이다. 재료는 소면 또는 중면, 간장, 설탕, 들기름, 계란 노른자로, 레시피는 매우 간단하다. 면을 삶은 후 양념장의 비율을 2:1:1로 넣어 섞어준 후 계란 노른자를 얹어주면 끝난다. 언뜻 보면 평범하지만 보통 간장국수와 다른 화사표 간장국수의 포인트는 계란 노른자이다. 들기름에 계란 노른자가 더해져 더욱 고소한 맛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꼬소한 불마요 들기름 막국수

꼬소한 불마요 들기름 막국수는 BTS 정국이 하이브 위버스에 공유한 레시피이다. 레시피는 2인분 기준 생들기름 3스푼, 참소스 2스푼, 진간장 1스푼, 불닭 1스푼, 불닭마요 1스푼, 노른자 1알을 소면과 버무리는 것이다. 여기에 후춧가루, 볶은 참깨, 양파나 고춧가루 등을 덧붙이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가 자신 있게 공개한 만큼 꼬소한 불마요 들기름 막국수에 대해 사람들은 매운 불닭소스를 메밀면과 다른 소스들이 잘 중화시켜 아주 맛있다는 반응 등 후기가 아주 뜨거웠다.



앞서 소개한 4가지의 레시피들은 만들기 매우 간단해 자취하는 학우는 물론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싶은 학우들에게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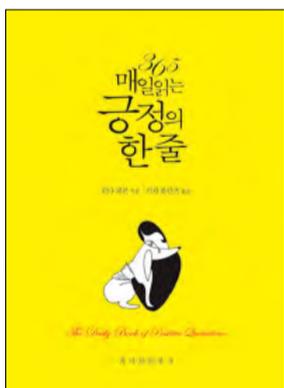
글 - 지연서 수습기자 yeonseo0127@sungkyul.ac.kr

[참조] - 나 혼자 산다, 스타뉴스/[사진] - 나 혼자 산다, 위버스



걱정되는 새로운 학기, 긍정적으로 시작하기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북적북적'은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나 인상 깊었던 책을 소개하는 코너이다. 이번 호에서는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 긍정적으로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365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

『365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은 세계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남긴 알찬 삶을 위한 명언들이 담겨있다. 이 중에는 웃음을 주는 글도 있고 깨달음을 일깨워 주는 글도 있다. 어떤 글은 읽을수록 용기가 샘솟고, 어떤 글은 절로 몽클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상반되는 명언도 있다.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조언하는가 하면, 친구는 몇 명만 가려 사귀는 게 좋다고 타이르기도 한다. 목표를

굳게 세우고 앞서가라고 다그치는가 하면, 부딪치는 대로 헤쳐나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 발씩 조심스럽게 디벼야 헛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격언도 있고, 오히려 실수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들도 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라고 충고하는가 하면, 누구도 아닌 자신의 판단을 믿고 그에 따르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이 명언 모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응원하는 말을 전하고자 한다.

이 책은 명언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스스로 생각하는 데 도움 될 글을 덧붙인다. 그리고 매일 한 줄씩 긍정의 의미와 삶을 새롭게 한다. 이 중에는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할 것도 있고, 한편에는 외면하고 있던 부분을 드러내 읽고 싶지 않은 글들도 있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글들은 삶의 좌우명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작가 린다 피콘에 대해



이 책의 저자 린다 피콘은 ▲학술 잡지 ▲아동서 ▲의학 관련 잡지 ▲도시 계획 등 다양한 글의 저자이자 편집자이다. 작가는 '인간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항상 질문한다. 그녀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삶의 즐거움을 찾아라』, 『삶의 지혜를 일깨워 주는 격언』, 『미국 식민 시대의 음식과 음료』 등이 있다.

기억나는 긍정의 한 줄

필자가 이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한 줄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하얀 새 종이 눈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 위에 어떤 이야기든 펼칠 수 있다."라는 명언이다.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이 명언은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필자와 학우들의 상황과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고 필자의 바람

걱정되고, 고민이 많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릴케의 명언처럼 하얀 새 종이에 어떤 이야기든 펼칠 수 있기에 이 글을 읽는 학우들도 긍정적이고 기대되는 새 학기를 맞이하기를 바란다.

글 - 유진규 수습기자 thanfaktmxj@sungkyul.ac.kr

사진 - 링크드인, yes24 / [참조] yes24



그때 그 시절을 느끼고 싶어!

8~90년대에는 연애 방식이 어땠을까? 지금은 연인이 보고 싶을 때 각자의 전화로 쉽게 통화도 할 수 있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지만 그때의 연애 방식은 지금과 많이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그 시절 연애를 살펴볼 수 있는 드라마와 영화를 소개해 보려 한다.



제목 응답하라 1988
개요 ▲드라마
편성 TVN 2015.11.06. ~ 2016.01.16.
 총 20부작
출연 배우 박보검, 류준열, 헤리, 고경표, 이동휘 등

#응답하라 쌍문동

넉넉하진 않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쌍팔년도 쌍문동, 어느 한 골목에 사는 다섯 가족은 서로서로 도와가며 살아오고 있다. 어느 때처럼 택의 방에서 DVD를 보며 수다를 떨던 쌍문동 5인방은 저녁 6시가 되자 각자의 집 대문 앞에서 엄마들이 밥 먹으라고 소리치는 말에 하나둘씩 일어나 택의 방을 떠난다. 하지만 정한 엄마의 선두로 반찬 나눔이 시작돼 쌍문동 5인방은 각자의 집 반찬을 들고 골목에 하나둘씩 모인다. 덕분에 밥과 국만 있던 택이네의 저녁 밥상은 이웃들의 따뜻한 정으로 남부럽지 않은 한 상이 차려진다.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지금은 느낄 수 없는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 그 시절이 좋다고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 친구에게 연락하려면 전화번호부에서 친구의 집 번호를 찾아 집 전화기로 연락해야만 하는 불편한 점 또한 존재했다. 이처럼 지금은 볼 수 없는 생활 방식이 많이 보여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 시절, 우리는 그 시절을 살아보고 싶다.



#운명의 또 다른 이름은 타이밍이다.

정환이의 첫사랑은 항상 타이밍이 어긋났다. 덕선이 TV 광고를 보며 자신도 핑크 앙고라 장갑이 잘 어울린다고 했을 때 앞에서는 이미연이니까 잘 어울리는 거라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갑을 선물하고 덕선의 반응을 살피려 창문을 기웃거렸

다. 덕선과 등교를 같이 하고 싶은 정환은 같은 대문 안에 사는 덕선을 매일 아침 대문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곤 했다. 그 뿐만 아니라 덕선이 독서실에서 밤늦게 온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 한숨도 못 자고 기다리다 비가 오는 것을 보지만 핸드폰이 없어 우산 여부를 물을 방법이 없었기에 마중을 나가 우산을 건네주며 “일찍 다녀”라는 말을 해 덕선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둘의 타이밍은 매번 어긋났다. 정환이 덕선을 좋아할 때는 덕선이 선우를 좋아했고, 덕선이 정환을 좋아할 때쯤 택이가 덕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정환은 우정을 택하고 사랑을 포기했다. 과연 택이가 덕선이를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정환이가 덕선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정환의 첫사랑은 이루어졌을까.

#사랑한다면, 지금 말해야 한다.

덕선이 정환이 아닌 택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필자는 택의 적극적인 모습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택이가 바빠서 마니포인 덕선의 선물을 까먹었을 때 늦게라도 덕선에게 “선물 뭐 가지고 싶어? 다 사줄게”라며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얘기했고, 어른이 돼서도 덕선이 소개받은 사람한테 바람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둑 경기 도중 기권패까지 해가며 제일 먼저 달려간 것도 택이었다. 택과 덕선은 서로 의지가 되는 존재였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던 택이를 골목 친구들과 가장 살뜰히 챙겨주던 덕선과 동생에게 치이고 잘난 언니한테 치여 나만 바라봐 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덕선을 예뻐해 주는 택이었기에 둘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타이밍이란 중요하다. 특히 사랑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 서로가 좋아했다라도 정환과 덕선처럼 타이밍이 엇갈린다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운명이 시시때때로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타이밍 또한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운명의 또 다른 이름은 타이밍인 것이다.



제목 20세기 소녀
개요 ▲영화
개봉 넷플릭스 2022.10.21.
출연 배우 김유정, 변우석, 박정우, 노윤서 등

#이 나보라만 믿어!

사랑보다 우정이 더 중요한 17세 소녀 보라와 심장수술을 위해 외국으로 떠나는 금사빠 연두. 연두는 보라에게 수술을 받고 올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백현진이라는 아이를 관찰해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보라는 자신만 믿으라며 “앞으로 넌, 그 애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게 될 거야!”라는 말을 하게 된다. 네 사람의 미래를 모른 채 말이다.

#너구나! 백현진

보라는 현진과 친해지기 위해선 현진의 절친 운호와 친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운호를 통해 현진의 뽀빠 번호를 얻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운호는 현진의 번호를 쉽게 주지 않았고, 그럴수록 보라와 운호는 티격태격하며 둘도 모르는 사랑을 키워나갔다. 한편, 보라는 현진을 열심히 쫓아다니며 어떤 옷을 입었는지, 농구를 하며 몇 골을 넣었는지 등 일거수일투족을 연두에게 보내줬다. 며칠 뒤 심장수술을 무사히 마친 연두는 한국으로 돌아와 현진을 만나지만 알고 보니 연두의 첫사랑은 현진의 교복을 빌려 입은 운호였다. 운호를 좋아하게 된 보라는 연두를 위해 운호를 포기하지만 얼마 뒤 연두는 보라와 운호가 서로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한 연두는 보라에게 “난 네 친구지, 네가 돌봐야 할 환자가 아니야”라며 화를 낸다.

#보고 싶어, 21세기의 네가

보라를 위해 마음을 정리한 연두는 운호에게 보라가 갑자기 널 밀어낸 건 자신 때문이라며 보라를 붙잡으라 말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있는 외국으로 곧 떠나야 하는 운호는 밤새워 고

민했고, 결국 보라의 집으로 향했지만 둘은 타이밍이 어긋나 만나지 못했다. 운호의 출국 당일 현진과 연두의 도움으로 둘은 역에서 만나게 됐지만 “난 행복했어,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라는 말을 끝으로 작별하게 됐다. 그 후 2년 동안 둘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인연을 이어갔다. 하지만 보라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메일 이후 운호의 답장은 받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보라의 일상에서 운호는 조금씩 희미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보라는 소개팅에 나가게 됐고 소개팅 상대의 이름이 운호라는 말을 듣자, 첫사랑 운호가 생각나 평평 울며 공중전화박스로 달려갔다. 그러나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는 운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너를 이제 정말 잊겠다고 말한다. 시간이 흘러 2019년 겨울 운호의 동생이 보낸 전사회 초대장이 보라에게 도착했다. 전사회에서 만난 운호의 동생은 운호가 2001년에 죽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보라에게 알려준다. 집으로 돌아온 보라는 운호가 만든 비디오테이프를 보게 되고, 테이프 속 운호는 21세기의 새해를 보여주며 “보고 싶어, 21세기의 네가”라는 말을 하며 영화는 끝이 난다.

지금 우리의 연락 수단은 다양하다. 목소리가 듣고 싶다면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다면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싶다면 메신저를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절 연락 수단은 뽀빠, 이메일과 같이 한정적이고 느려서 불편했지만, 뽀빠가 울리는 것을 보고 주변 공중전화박스를 찾는 설렘과 같이 우리는 느껴보지 못한 그 시절에만 느낄 수 있는 설렘이 존재했다.

2023 FIFA 여자 월드컵 개막

‘요즘은 여자 축구가 인기’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여자축구 대회인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이 7월 20일 개막했다. 알면 알수록 재밌는 여자 월드컵 이야기를 이번 호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여자 월드컵 들어봤어?

어쩌면 여자 월드컵은 좀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여자 월드컵은 남자 월드컵에 비해 아직 인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유럽 등에서 여자 축구 바람이 불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년 전 프랑스 여자 월드컵은 전 세계에서 10억 명이 시청했을 정도였으며 이번 대회도 지난 대회를 뛰어넘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개막 한 달 전에 이미 지난 대회보다 많은 티켓이 팔리면서 FIFA는 개막 경기가 열리는 장소를 4만 석에서 8만 석이 넘는 경기장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남자들만의 스포츠라고 여겨지던 축구가 어쩌다 여자 월드컵이 생기게 되겠는가? 이는 FIFA에서 여자 월드컵을 개최한 것으로 시작된다. 1회 대회는 1991년 중국에서 개최됐으며 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남자 월드컵과 동일한 4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2023 여자 월드컵은 9번째 대회이며 FIFA가 주관하는 메이저급 국가대항전이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어때?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팀은 2003년 처음으로 월드컵에 출전했다. 이번 2023년 여자 월드컵은 2015년, 2019년에 이어 3회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한 셈이다. 10년 이상 함께한 베테랑들로 구성된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에 대한 각오가 남다르다. 긴 세월 함께한 선수들인 만큼 팀 조직력도 극대화돼 있지만, 국제 대회와 평가전을 치르는 등 체계적인 준비도 했기 때문이다. 다수의 선수들은 해외리그에서 활약하면서 국제경기 경험을 축적해 더욱 각오를 다졌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 중 가장 많은 골인 67골을 터뜨린 지소연 선수를 비롯해 국가대표로 145경기나 출장한 조소현 선수 등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어 온 황금세대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예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반대로 ‘2000년대생 4인방’ 등 젊은 선수들의 조합도 호평을 받고 있다. ‘천메시’라 불리는 천가람, 멀티플레이어 추효주,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친 배예빈, 대표팀 최초의 다문화 가정 선수이자 역대 최연소 선수인 케이시 유진 페어 등을 주목해야 한다. 영국 출신 폴린 벨 감독은 우리나라 여자축구 최초의 외국인 감독으로 2019년부터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었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팀은 2022 아시안컵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 달성과 동시에 2023 FIFA 여자 월드컵 본선 진출 등의 성과를 통해 FIFA 랭킹 17위로 이번 월드컵에 참여했다. 폴린 벨 감독은 3년 넘게 선수들과 함께 갈고닦은 고강도 축구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3 여자월드컵

높게 강하게 도전하라



다른 나라는 어때?

남자 축구에 브라질이 있다면 여자 축구에는 월드컵 최다 우승 팀인 미국이 있다. 미국이 이번에도 월드컵 우승을 하게 된다면 남녀를 통틀어 월드컵 최초로 3연속 우승컵을 들어 올리게 된다. 이는 남자 축구와 다르게 전통적으로 여자 축구 시장이 가장 발달한 곳이 유럽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이번 대회는 여자 축구 스타들의 마지막 월드컵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남녀 월드컵을 통틀어 17골로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린 브라질의 마르타 선수는 마지막 월드컵인 동시에 생애 첫 월드컵 우승을 노리고 있다. 여자 축구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미국의 메건 래피노도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다음 여자 월드컵도 있지?

다음 개최되는 2027 FIFA 여자 월드컵은 아직 개최 희망 국가만이 공개됐다. 공식적으로는 ▲브라질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멕시코가 유치 경쟁에 들어갔다. 이처럼 최근 여자 축구를 향한 세계인의 열기가 뜨겁다.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여자 유로 2022에서 치러진 31경기에 관중 약 57만 명이 입장했고, 잉글랜드-독일 결승전을 보기 위해 약 9만 명이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을 방문했다. 이는 남자 유로 2020 잉글랜드-이탈리아 결승전 관중보다 많은 수치다.



여자 축구의 전망은 어때?

2022년 유럽 축구 연맹(UEFA) 보고서는 “여자축구의 상업적 가치가 10년 뒤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023 FIFA 여자 월드컵의 흥행 기대감은 티켓 판매량이 증명했다. 개막을 약 한 달 앞둔 지난 6월 11일 103만 2884장을 판매해 직전 여자월드컵(2019 프랑스) 전체 판매량을 이미 뛰어넘은 것이다. 흥행 조짐이 일자 FIFA는 개막전 장소를 4만 석 규모의 ‘시드니 풋볼 스타디움’에서 8만 석 규모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로 변경했다. 이번 대회는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한 단일 종목 여성 스포츠 행사로 기록될 예정이다.



여자 축구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번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 삼아 다음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며 여자 축구의 관심 또한 더욱 커지길 기대한다.

청년 정책을 말하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다. 사회적으로 청년의 권리 보장과 발전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2020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됐다. 더불어 청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청년을 위한 정책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와 스며들고 있을까.

고용 불안과 함께 출발한 청년 정책

1997년 IMF 이후 청년 실업이 늘어나자 사회는 청년들의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잇따라 2000년대 대졸자가 보편적으로 취업하기 관찮은 일자리는 32만 6천 개나 감소하며 청년 실업 비율이 전체 실업자 비율의 반을 차지했다. 청년들의 실업으로 고학력 고급인력이 낭비되며 이는 국가의 지속적 경제 발전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는 청년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국가 역량 강화에 기여되는 정책이 필요했다. 여러 사회적 노력과 국회의 논의 끝에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시행됐다.

연쇄적인 청년 문제

청년들은 최근 ▲교육 ▲주거 ▲고용 ▲문화 등에서 빈곤함을 느끼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 안전망 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에 따르면 전국 만 19~34세 청년 4,03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청년 3명 중 1명은 자신을 교육이나 주거환경 등에서 '빈곤층'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27.8%가 자신을 교육빈곤층으로, 31.3%가 주거빈곤층이라 답했다. 사회는 단순히 고용 문제만 해결하면 빈곤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청년들의 삶에는 다양한 결핍이 나타났다. 이런 결핍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 정책



2023, 우리의 내일을 위한 도전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대상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문맹률 21점 이상인 만 19~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지역특화)

지원내용	도전+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4주 이상, 40시간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상담, 사례관리, 자선활동,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도전 프로그램 이수 시 150만 원 지급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서비스 연계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6개월 이상, 총 200시간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상담, 사례관리, 자선활동,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및 취업활동 지원 도전 프로그램 이수 시 150만 원 지급 도전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서비스 연계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거주지역 운영기관 직접신청

기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수 시 참여자에게는 50만 원의 참여 수당이 지급된다.

도전+ 프로그램 (5개월 이상): 이 프로그램은 '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외부 연계 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해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월 50만 원씩 5개월간 지급되는 250만 원의 참여 수당과 이수 시 추가적인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청년행복주택

- 주거

청년행복주택은 젊은 세대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청년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청년행복주택의 신청 조건은 만 19세~39세 미혼 무주택자이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지만 1인 가구라면 120% 이하여야 한다. 자산 조건은 세대의 총자산 가액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복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이다. 전문심리상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며 3개월 동안 주 1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가 부여된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고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를 예방합니다.

서비스 대상	서비스 가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제공안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내역 사전 사후 검사(각각 1회/500원) 포함 3개월(10회)간 전문상담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대안활동 통해 심리 안정화 지원 가능) *신청기간: 2023.09.01 ~ 2023.12.31 *신청지역: 전국(제주도 제외)	(A)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B) (A) 서비스 가격 40,000원 - 상담비율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원 (C) 자립준비청년, 청년이해지원의 방문자를 서비스 목적이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D) (A) 서비스 가격 70,000원 - 상담비율 49,000원 - 본인부담금 7,000원 * 상담비율: 프로그램당 상담 시간당 상담료(100%)에 상담 시간당 상담료
신청방법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포(문)라인 신청부서로 연락	

- 고용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은 구직 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도전 프로그램'과 '도전+ 프로그램'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이 프로그램은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심리상담

청년 정책의 한계

청년 정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한계 또한 존재한다. 청년 빈곤은 소득이라는 경제적 자원으로 해결되기 어렵지만 청년 정책 다수가 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경제적인 빈곤을 넘어 교육과 복지 등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 청년 빈곤을 바라봐야 한다. 다양한 관점에서 청년 빈곤을 바라보며 정책 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년 정책은 정보의 격차가 존재한다. 2019년 통

계청에서 조사한 '2019년 참여 관련 법과 정책 및 기구 인지도'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청년 관련법에 대한 질문에 '전혀 모른다'(37.7%), '모른다'(39.0%), '보통이다'(16.7%), '알고 있다'(6.5%), '매우 잘 알고 있다'(0.1%)로 나타났다. 막상 정책 대상인 청년이 모르는 것이다.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청년들을 이끌어야 한다.

정책 시행 이후 관리 역시 부족하다. 지자체의 일자리 매칭 이후 계약 연장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이 원

하는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보다 성과 위주로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 일자리 정책 중 직접 일자리가 43.9%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반면 전문적인 고용 지식을 제공해 안정적인 취업을 돕는 직업 교육·훈련은 22.0%에 그쳤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미래를 쟁취하라

청년 정책을 더 발전하게 만드는 것은 청년의 목소리다. 청년들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 우리에게 적합한 정책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청년끼리 협력과 화합으로 우리만의 정책을 찾아야 한다. 공

동체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사회 본원적인 문제를 관찰하며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고민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고 미래를 이끄는 데 기여해야 한다.

글 - 김다운 기자 kjjg99@sungkyul.ac.kr

사진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참조] 경기일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랑스러운 성결인



이승재
현 굿네이버스 NGO 활동가

Q 지금 하는 일은?

지금은 2023년 1월 자로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 NGO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고 NGO 활동가라는 명칭의 직무를 맡고 있다. 현재 초등 교육 그리고 각 가계들과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캠페인 그리고 대학생들이랑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Q NGO 기업 '굿네이버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서 사회복지사는 항상 사회복지관에 있어야 된다는 약간의 고정관념이 조금 있었다. 복지관이 싫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롤모델 한비야 님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을 읽고 사회 복지적인 면이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해외에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아동 중에서도 해외 아동을 위한 권리 옹호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유니세프 활동을 진행하면서 국제 기구나 유엔 혹은 지금 '굿네이버스'처럼 NGO 단체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NGO 활동가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어렸을 적 월드비전에서 기아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캠페인성 프로그램을 같이한 적이 있다. 그때 처음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몸소 체험하면서 내가 대학에 진학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굿네이버스와의 인연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 당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기관이 실습생을 뽑지 않았는데 원래 실습하기로 했던 기관에서조차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에 집 주변에 있는 굿네이버스 부천지구에서 실습을 하게 됐다. 그때 처음으로 NGO 기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됐다.

굿네이버스를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그때 당시 실습생이 처음으로 비대면 활동을 했던 시기라 좀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 직원들 앞에서 줌에 대한 강의할 기회를 지부장님이 주셨다. 지부장님도 직원들한테 강의를 해보는 것은 좋은 기회일 거 같아 한번 해보라고 하셨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그때 처음으로 굿네이버스는 기회의 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비록 실습생 신분이지만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나이가 어리다고 직책이 낮다고 해서 무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존중해 주고 더 귀를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단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입사를 준비했다.

Q 성결대에 와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았는지?

모든 순간이 좋았다. 농담이지만 진짜 대학 생활을 너무 즐겁게 해서 정말 다 좋았다. 그리고 좋

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다. 인생의 롤모델로 삼을 만한 학생회장 선배님을 2016년도 신입생 때 만났는데 언제나 늘 응원해 주시고 바른길로만 갈 수 있게 안내를 해주셨다. 그 선배님을 통해 더 많은 분께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함께했던 대학 동기들이나 학과생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회랑 소모임 친구들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다. 누구 하나 모나지 않고 분위기를 흐리지 않으며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같이 으싸하는 분위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처음 본교에 입학했을 때는 학교에 특화된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선배들도 취업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군대 전역을 마치고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비교과 담당해 주시는 교육혁신지원센터에서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수님들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다. 우리 과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학과에서도 복전생이나 부전생을 비롯한 모든 분이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음으로써 다양한 분들이 학과에 어울리며 다양한 관점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감사하게도 국제개발협력학과에서 경진대회 참여 기회를 부여해 주셔서 추후에 NGO 활동가의 시점을 넓힐 수 있었다.

성결은 기회의 장이자 꿈을 꿀 수 있었던 스테이지였다. 다양한 기회의 장들을 만들어 준 것이 나의 학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었던 학교생활이지 않았냐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동문을 대표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을 하든 동문들이 그 발자취를 지나왔던 사람들이고 여러 분께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많이 물어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성결은 나에게 인생에 있어 잊을 수 없는 6년을 선사해 준 그런 선물 같은 학교다. 감사하다.

Q 대학 시절 가장 생각나는 활동이나 일은?

학교에서 중앙운영위원회라고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기관장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학우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안건 등을 학교에 계신 직원분들과 상호 합의하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학생분들을 대표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학교 직원분들하고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고 실제로 학우분들이 불편해하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다. 37대 중앙운영위원회를 같이 했던 분들은 지금까지 여행도 같이 다닐 만큼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랑 같이 지냈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

그리고 나서 기억에 남는 건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 행사도 많이 어려웠는데 유튜브로 학과생분들과 온라인 행사를 한 번 했었다. 그때 우리가 더 이상 전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도 충분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다.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불평불만 하나 없이 마스크를 안전하게 끼면서 행사를 진행해 준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우리 39대 사회복지학과 늘봄 학생회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약해질 줄 알았더니 더 심해진 한 해였는데 그때는 학교에 분리수거가 잘 안되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어머님들이 보였다. 그래서 우리 23대 사회과학대학 So.you 학생회 친구들이랑 음료 수거함을 만들었다. 학생지원과랑 시설관리과에 허가를 받아 학생회관 2층에 음료 수거함을 배치했는데 그때 별명이 학생회관 고무장갑남이었다. 지금은 음료 수거함이 사라졌는데 그걸 찾는 학우분들이 꽤 있어서 너무 뿌듯했고 무엇보다 환경을 생각하는 캠페인성을 갖고 우리가 좀 더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했었는데 실제로 학생회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이 음료 수거함에 잘 버려주시고 너무 감사드렸다.

한편으로는 학생 때 해볼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으로 푹푹 뭉쳐서 누구 하나 빠짐없이 열심히 작업하면서 늦게까지 집도 못 가고 열심히 도와준 우리 23대 사회과학대학 So.you 친구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시대에 같이 함께했던 우리 39대 사회복지학과 늘봄 친구들, 마지막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함께 고생한 37대 중앙운영위원회와 38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HAND 친구들, 돌아보면 가장 좋았고 재밌었고 고마웠다.

Q 사회복지학과 지원을 생각하는 입시생들과 재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최근 들어 기업은 물론이고 단체 그리고 학교나 ESG 등 그런 사회공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우리가 사회복지를 전공한다고 해서 그 분야에 진출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천천히 스며드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과 친구들이 한 분야에 너무 몰두해 있지 않고 보다 다양한 분야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로봇이나 AI가 점차 사회를 대체하고 있다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이 닿는 일이다. 물론 기술적으로 더 발전되면 더 많은 분들께 전달이 돼서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나도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닿기까지는 우리가 직접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 일로 하여금 더 좋은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매우 많다. 법안에서 법에 의거 되지 못해 도움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 때처럼 갑자기 재난이나 재앙으로 인해 어려우신 분들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학과에 들어오신 이상 마음을 쏟아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후배들을 보니 해외 사회복지에도 실습을 많이 나가던데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조금 더 욕심내서 더 많은 나라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위상을 알려주면 좋겠다. 더불어 되돌아봤을 때 사회복지학과를 나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스스로 느꼈으면 하는 제 바람이다.

학과에 다양한 소모임들이 많은데 소모임을 통해 학과에 있는 많은 것들을 뽑아내시면 좋겠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되게 좋으시니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편안하게 올라가셔서 문 두들기시면 어느 교수님든 차나 커피 한 잔 내어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실 거 같다. 이 인터뷰 보시면 안 그러시던 교수님도 바꿔주실 거 같다. 그만큼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학과 생활하면서 지식 많이 얻어가시고 미래에 더 저보다 훌륭하시고 대한민국을 밝혀주시길 아주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많이 나오길 바란다. 국제개발협력학과에서도 더 좋은 인재들이 나오기를 응원하겠다. 많은 기회를 주신 사회복지학과, 국제개발협력학과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Q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굿네이버스라는 좋은 NGO 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으로 더 많은 아이가 어려운 생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이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핵심 가치를 갖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NGO 활동가가 될 예정이다. 기회가 된다면 해외 어느 사업장이든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쓰면서 해외 사업장에 대한 이해도도 넓혀가고 싶다.

또한 어느 순간부터 강연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누군가한테 내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공감해 주는 것이 너무 좋았고 누군가 영향력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즐겁다. 언제나 갓생러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게끔 내 이야기를 담은 책도 한번 내보고 싶고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동기부여도 주고 싶다. 그렇게 매해 성장하면서 일과 사랑 그리고 친구들, 주변 지인들까지 놓치지 않고 스스로를 겸손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자칼럼

지구 온난화, 아니 열대화



권경아 수습기자

지구 열대화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우리는 '지구가 아파요.'라거나 '지구를 지켜요.' 같은 문장들을 많이 봐왔다.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을 지키는 것에 동참하자는 슬로건이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 지구가 따뜻하게 데워지는 단계를 넘어 끓고 있는 단계로 진입해 버린 것이다.

미국의 기상학자 제프 바라델리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 평균 기온이 3°C 오르기까지 1만 년이 걸렸지만, 현재는 200년 만에 지구 평균 기온이 3°C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구 온도 상승에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른 기후 재앙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의 기온이 50°C에 육박한 가운데 그리스에서만 최소 8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또, 엘

니뇨로 인한 세계 폭염으로 남극에서 비가 내리고, 알프스 빙설이 녹아내리는 등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극지방과 산맥 등도 영향을 받고 있다. 국외뿐만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불규칙하고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이 터져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폭우 이후에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

기후 위기는 작물 생산에도 영향을 끼쳐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기후와 고물가의 합성어인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해 기후 위기로 전체 물가 상승률이 0.67% 포인트 더 높아졌다고 전했으며, 2035년에는 기후 위기로 세계 식품 물가 상승률이 3.0% 포인트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단순히 지구가 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브레이크를 세계 걸어야 할 때가 왔다.

이처럼 지구 열화와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의 코앞에 닥친,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중대한 사안이 됐다. 지구 온도 상승에 가속도가 붙은 만큼, 개인의 노력은 무의미하며 국가나 기업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지만, 필자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아주 작고 사소하더라도 개개인의 노력은 필수이며,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아닌 개인 텀블러에 음료를 받는 것이, 택시보단 주변 환경을 바라보며 한 번 걸어가는 것이, 일회용 봉투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 줄 것이라 믿는다. 이 글을 읽는 학우들도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고 환경을 위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지금 이 시간에도 끓고 있을 지구를 위해서.

글 - 권경아 수습기자 kka468@sungkyul.ac.kr

체험에세이

홀로 떠난 나들이



지연서 수습기자

필자는 평소 남에게 의지하는 성향이 강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새로운 장소에 갈 때는 늘 누군가와 같이 갔고 식당에 가 주문할 때는 친구에게 미루는 등 나서는 일이 드물었다. 혼자서 뭘 하는 것을 두려워하니 요즘 흔히들 하는 혼밥, 혼영은 절대 하지 않았고 SNS를 통해 가고 싶은 곳이 생겨도 가본 적 없는

낯선 지역이라면 포기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공모전을 위해 학교에 가다 우연히 하늘을 봤다. 평소와 다를 바 없던 하늘이 그날따라 유독 파랗고 햇빛이 짙어졌다고 느껴졌다. 평소라면 공모전 준비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어딘가에 놀러 가고 싶은 느낌이 들었고 충동적으로 잠실에 갔다. 도착해 친구와 같이 갔던 적이 있는 솔밭

“
한 달 전 그 감정을 이제서야 알 거 같다.
지난 그 감정은 나에게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바람과 같았다.
만약 필자와 같이 평소에는 두려워 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한 번 도전해보자.”

식당에 가 혼자 밥을 먹고 가게에서 나올 때 받은 요구르트를 마시며 송리단길을 돌아다녔다. 나들이하는 기분을 만끽하며 혼자 사진도 찍었다. 오랜만에 돌아온 맑은 날을 그냥 보내기 아쉬웠고, 혼자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좀 더 느끼고 싶어 보고 싶었던 영화를 예매한 후 만화카페에 갔다. 항상 친구들과 왔던 곳을 혼자 간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가게에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만화책을 고르며 긴장은 자연스럽게 풀려 즐거움만 남았다. 마음껏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다 보니 나른해져 깜빡 졸고 말았다. 깨어나 보니 영화 시간이 다 된 것에 놀라 급하게 영화관으로 이동했다. 가는 길에 우연히 석촌호수를 걷게 됐다. 필자뿐만 아니라 커플, 가족, 친구 등 많은 사람이 석촌호수를 걷고 있었다. 무더운 여름이어서 호수는 예뻐고 호수 주위를 걷는 사람들은 즐거워 보였다.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걷는데 알 수 없는 감정이 들었다. 하루 동안 평소에는 두려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했는데 정말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화를 본 후 집에 가면서도 끝내 그 감정을 알 수 없었다.

한 달 전 그 감정을 이제서야 알 거 같다. 지난 그 감정은 나에게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바람과 같았다. 만약 필자와 같이 평소에는 두려워 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한 번 도전해보자. 복잡미묘하지만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한다.

글 - 지연서 수습기자 yeonseo0127@sungkyul.ac.kr

편집장 노트

나의 인턴일지

열심히 달린 한 학기가 끝나고 종강과 함께 방학이 찾아왔다. 다들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자격증 공부나 대외활동과 같은 스펙 쌓기나 여행 등 자기만의 방학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필자는 주로 방학 동안 여행을 다니며 한 학기 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방학은 조금 달랐다. 취업을 코앞에 둔 4학년 하계방학을 이렇게 보낼 순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스펙을 쌓는 동기들을 보며 조금씩 압박을 느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고 운이 좋게 인턴에 합격해 2달간 인턴으로 일할 수 있었다.

필자가 근무하는 곳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대략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해선 매일 6시 30분에 기상해야 했다. 적지 않은 출퇴근 시간에 처음엔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

고 짜증을 내고 후회하며 일어나던 아침이 “오늘도 해내야지!” 하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인턴을 하며 가장 배우고 싶었던 것은 바로 실무경험이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이론 중심이라 막상 취업을 한 뒤 자신의 부족함에 회의감을 느낀 적이 있다. 선배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 인턴에 출근해 일을 배울 때는 엑셀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잦은 실수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짜증이 났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인을 찾고자 했다. 그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일을 처리할 때 속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빠르게 일을 해치우고자 했기 때문에 실수가 생기고 꼼꼼하게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을 받으면 꼭 데

드라인을 여쭙보고 몰아서 하기 보단 요일마다 할 일을 나눠서 일을 했다. 그러다 보니 능률도 오르고 잔실수도 줄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듯 짧지만 인턴 경험은 나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좋은 계기가 됐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며 추후에 취업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직무에서 일하고 싶은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취업 전에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끼게 됐다. 삶에 있어 정답은 없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는 것은 필요하다. 만약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고민보단 일단 실행에 옮겨보는 건 어떨까. 의외로 그 곳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lud0827@sungkyul.ac.kr

주간사설

잼버리 유감



김희선 교수
영어영문학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에서 열렸다. 세계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인 아마드 알헨다위(Ahmad Alhendawi)는 “스카우트 잼버리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다.”고 입장을 밝혔고 국내외 언론 역시 “역대 최악의 잼버리 대회”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대원들의 조기 철수라는 예측불허의 일들이 발생하였던 것도 아마 잼버리 역사상 최초가 아니었나 싶다. 각 지방자치의 문화행사나 K-Pop 공연 등으로 일부나마 긍정적 성과의 마무리로 한시름 놓기도 했지만, 잼버리가 열리던 12일간 각 나라의 대원들의 부모들을 물론, 개최지인 우리나라 국민 모두 비판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대회가 끝났지만 당분간 그 후유증과 책임소재 조사 등은 만만치 않으리라 본다. 그간 6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조직위원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전북 전주갑 국회의원 등 무려 5명이나 되었음에도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그리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것을 보면, 대상이 십대 청소년들이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이미 1991년에 우리나라는 강원도 고성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세계잼버리를 잘 마쳤던 전적이 있기도 하고, 더욱이 올림픽과 월드컵을 비롯한 각종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과 자력이 있는 나라임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필자는 중학생 시절, 학교 걸스카우트단에 들어가 멋진 단복을 입고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당시 각반의 학생장과 부학생장만이 걸스카우트 단이 될 수 있다는 학교방침에 따라 입단을 하지 못해 다소 실망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그다지 선망의 대상이 된 건 아니었다. 예전엔 스카우트 단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활보하던 학생들이 자주 눈에 띄었지만, 언제부터인지 요즘은 스카우트 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기 힘든데, 그 이유는 아마도 학생들이 공부와 입시에 치중하다 보니 스카우트 활동을 할 여유가 없어서 인기가 시들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아무튼, 이참에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스카우트를 최초로 창설한 사람은 영국의 로버트 베이든파월(Robert Baden-Powell)이다. 그는 영국의 전직 군인으로서 1899년 기병대 장교로 보어전쟁에 참전 당시, 소년들을 대상으로 군대 경찰대와 척후병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중 『소년을 위한 정찰활동』(Scouting for Boys)은 큰 인기를 모았다. 베이든파월은 소년들의 시민 정신을 육성하고 야외생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훈련의 필요성을 깨닫고 1907년 22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아이디

어를 시도했고 이것이 보이스카우트의 시작이 되었다. 이후 보이스카우트는 영국에 확산되고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1910년에 그는 소녀와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걸스카우트의 전신인 걸가이드(Girl Guides) 운동을 조직하였으며 이후 걸스카우트 연맹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각국의 동참과 운동 확산을 지켜본 베이든파월은 전 세계의 스카우트 대표단을 한 곳으로 불러모아, 각국 청소년들이 우애를 증진하고 직접 교류하고 서로 배울 필요성을 느꼈다. 1918년 잼버리가 국제 스카우트 회의에서 건의되어 1920년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22년 10월 5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보이스카우트 운동이 시작된 이래 2022년 10월 5일 한국스카우트 연맹 100주년을 선포하였다.

‘잼버리’(Jamboree)의 어원은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라는 뜻의 북미 인디언의 단어 ‘시바리’(Shivaree)가 유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전음화 한 것으로, 여기에 영어의 ‘jabber’(재잘거리다)와 ‘jam’(군중)이 합성되어 ‘잼버리’가 되었다. 제1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렸던 영국 런던에서의 장소 이름이 ‘올림피아홀’이었던 것만 보아도 올림픽 정신의 연장선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개최예정지였던) 이란의 혁명으로 대회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면 매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초대 대회는 세계 각국의 스카우트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스카우트 박

람회에 가까웠으나, 차츰 캠핑에 기반한 활동으로 발전하였으며, 프로그램 구성도 전시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 바뀌어 참가자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갖는 방향으로 발전해갔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5대륙 각국에서 돌아가며 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아직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된 적은 없다고 한다. 잼버리의 특징 중 하나는 대만의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 사용이 허용되는 몇 안 되는 국제행사이다. 이는 중국 등의 공산권에는 스카우트가 없기 때문이다. 공산권 국가들에선 ‘피오네르’(러시아어로 ‘개척자’)가 스카우트의 역할을 대신하여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조선소년단’도 피오네르의 일종이라고 한다.

그동안의 세계잼버리의 슬로건을 보면, “세계평화증진”, “세계시민”, “새 모험을 마주하라”, “행복한 삶을 이끌자”, “더 높이 더 넓게”, “세계는 하나”, “화합의 정신” 등이었고, 이번 새만금 잼버리의 슬로건은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였다. 다음 잼버리는 2027년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열린다.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통해 든 필자의 이런저런 생각들이 잼버리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살펴보는 기회가 됨으로써 처음에 들었던 유감(遺憾)이 다양한 유감(有感)으로 전개된 듯하다. 어느덧 100년이 훌쩍 넘은 역사를 지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좌·우의 정치적 이념과 색채를 떠나 전 세계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하나’되어 서로 교류하고 소중한 배움을 얻는 즐거운 잔치로 확대되길 소망한다.

고수칼럼

너는 시를 사랑하느냐



빈미정 교수
중어중문학과

“애야, 요즘 시를 공부하느냐?”, “아뇨,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요.”, “사람이 시를 모르면 말을 할 수 없단다.” 위 대화는 공자가 아들 리(鯉)에게 했던 말이다(《論語·季氏》). 요즘의 부모는 어떨까?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눈앞에 아들이 보이면 이렇게 말할 듯하다. “애야, 취업 공부하고 있니?”, “아뇨,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람이 자격증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단다.” 공자는 시 공부를 통하여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여겼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 역대 주석에 따르면, 시를 통하여 심기가 화평하게 다스려지고 사리에 통달하게 되는 것이라 했으니, 인성 훈련과 깨우침을 우선 시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자도 인성의 훈

련으로서만 시 공부를 강조한 것은 아니었으니, 시에 통달하여 정치를 원만하게 이루어내고, 외교적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기능적 수행을 말하였고(《論語·子路》), 시는 정서적 감흥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시를 통하여 세상의 풍습 유행을 볼 수 있으며, 시를 노래함으로써 많은 사람과 호응할 수 있고, 때로는 원망을 하소연할 수도 있는 장치(《論語·陽貨》)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육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교육에서는 기술과 기능적 능력을 중시하고, 정서적 안정과 소통과 통달의 능력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심리적 안정성을 가지고 지식과 실력 그리고 소통에 원활하다면 자신의 소임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은 분명한 거 같다. 그런 점에서 시 공부의 중요성은 거듭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필자는 우징송(吳經熊, 1899-1986)의 《聖詠譯義》를 읽게 되었는데, 중국 고체시의 전통을 갖추면서도 의미의 정확성과

시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여주는 그의 표현과 전달력에 매료되었다.

근현대 중국의 법학자이자 중국 헌법 기초하고 유엔 헌장의 기초위원을 역임하였던 吳經熊은 고전에 대한 지식과 공부를 자신의 신앙에 녹여내어 시편을 번역하였다. 전통시의 격률과 시적 표현을 활용하여, 성경의 시편을 전통 운율을 가진 시로 옮겼으니, 공부가 얼마나 깊게 체화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시편 제 1장에 나오는 악인과 의인을 군자와 소인으로 번역하는 등 문자의 정곡을 찢러 문자의 정서를 중국적 표현하는 길을 찾았다. 答客難, 口蜜腹劍, 病中吟, 渴慕, 孤憤, 人窮返本 등의 시편 제목만 보더라도 그의 번역이 얼마나 중국의 지적 전통을 담아냈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시편 119편은 압권이다. 유가적인 정서 안에 깃든 사람이라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뜻이 너무도 자명한 용어를 사용하여 성경의 원의를 드러냈다. 正心誠意, 立志學道, 擇善固執, 從容中道, 自強不息, 至誠不息, 克己復禮, 夙夜無懈, 默識心通 등이 그렇

다. 이렇듯 중국인의 감수성에 딱 들어맞는 번역된 그의 시편 번역과 더 나아가 신약 번역으로 이어진 그의 작업은 오늘 우리에게 계도 시사하는 바 크다. 많은 사람이 그의 번역 성경을 읽고 신앙으로 돌아왔다고 그는 《동서의 피안》에서 술회하고 있다. 신약 성경을 번역하며 올린 그의 기도가 있다. : “제가 거룩한 말씀이신 아드님께 중국식 두루마기를 입혀드리도록 도와주소서. 그것을 보기 좋고 입을 만한 솔기 없는 두루마기로 지어 드리게 하소서. 그 도포에 동양적 촉감을 주시어.....”

학생이 공부하고 자신의 전공 분야에 성취를 거두려 노력하는 이유는 자신의 소리를 갖고, 자아의 주체성을 가진 삶을 살고자하기 때문일 것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를 가까이하고 익힌다면 내면의 안정 뿐 아니라 직관과 통찰, 사람과 사물을 이해하고 관조하는 능력이 곁들여 오지 않을까. 프랑시스 풍주(1899-1988)의 <새>처럼 “때로 높은 가지 위에 자리 잡고, 나는 그곳을 엿본다. 어리석고, 불평처럼 찌부러져서.....”

세상과 같이하는 가치로운 성결의 힘!

성결대학교 공식캐릭터 공모전

공모대상 | 성결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성결대학교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캐릭터

공모기간 | 9월 1일 - 9월 30일

공모자격 | 성결대학교 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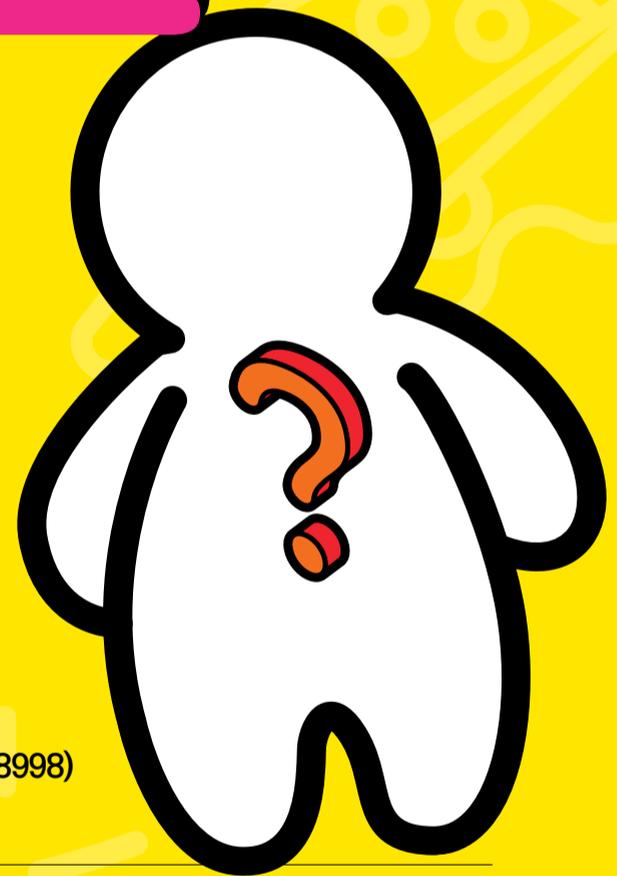
공모방법 | 통합역량개발시스템 (<https://success.sungkul.ac.kr>)

공모 형식 | 캐릭터 디자인 (대표시안 1종, 응용동작 1종)

심사 기준 | 적합성, 독창성, 완성도, 확장성

수상 혜택 | 성결대학교 총장상 및 시상금 (총1,000,000원), 비교과 S-point 부여

문의 | 이메일(media@sungkyul.ac.kr) 또는 홍보미디어센터(031-467-8998)



주제	성결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성결대학교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캐릭터			
형식	디자인	대표시안 1종, 응용동작 1종		
		규격	A4(210×297mm)	가로세로 무관
		수상작은 추후 원본파일 제출 (AI 또는 PSD 파일)		
스토리텔링	캐릭터 네이밍 및 특징·성격·스토리를 자유형식으로 작성			



성결대학교
SUNGKYUL UNIVERSITY